

전주시, 대선공약 '전통문화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 전통문화 차별화 국가 성장모델 구축

## 한문화 재창조 · ICT연계 관광명소 조성

전주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중심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것은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파리, 로마를 뛰어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대선공약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지역 차원의 사업을 넘어 국가적 문화브랜드를 만들고 국부 창출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가칭)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전통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시범도시(전주) 조성, 한문화 원류·원형 복원 및 재창조, 과학기술과 융합한 한문화산업 육성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시아 관광허브도시, 전주 실현

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핵심정책인 천년역사 정립·재창조의 경우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특히 행정공간(전라감영), 생활공간(한옥마을), 도성(풍납문), 국가교육공간(향교), 의례공간(경기전), 왕권상징공간(객사) 등 조선시대 지방행정 거점유산 원형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공간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한문화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한문화 헤리티지로드 재창조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헤리티지로드는 한문화 광장(조선테마광장)과 로드샵, 복합예술센터 등 예술공간을 갖추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걸으면서 예술을 접하는 또 하나의 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해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문화, 정체성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해외동포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파크도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문화유산 거점 구축은 2018년 전라도 개도 천년을 맞아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과 새로운 국가동력으로 만드는 그랜드디자인 구축을 위해 국립 천년의 뮤지엄, 전라정신의 숲 국가기록원, 전통놀이 테마파크 등을 담고 있다.

국립 천년의 뮤지엄을 통해 고대에서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전라도 천년 역사와 문화유산을 담아내고, 전주사교, 완관문, 조선왕조실록 등 전통과 현대를 잇는 기록문화의 정통성을 이어 각종 각종 인문학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기록문화 플랫폼인 전라정신의 숲 국가기록원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또, 전통놀이 테마파크 조성으로 차별화된 관광·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전통문화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의 경우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활용한 전통문화 어드벤처

처벌리를 구축하고 전통문화기반 디지털 기술 융합 R&D(연구개발)센터 구축, (가칭)한국전통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등을 대선공약으로 요구기로 했다.

전주한옥마을과 ICT(정보통신기술산업)를 기반으로 미래먹거리로 급부상한 VR, AR, MR를 연계해 지역특화형 관광명소로 조성해 관광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지원, 활성화시킬 국가기관인 (가칭)국립전통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도 요구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피렌체와 리버풀 등 유럽문화수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힘이 관광, 경제, 그리고 일자리로 이어지는 파급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전주의 우수하고 풍부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각종 기반시설들이 대선공약에 반영돼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불량계란 식당에 납품한 유통업자 등 19명 검거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악용해 불법 계란을 유통, 판매한 유통업자와 농장주, 식당주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불량계란을 사들여 식당에 납품·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유통업자 A씨(46)와 농장주, 식당주인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인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3개소 종계장에서 1판당, 1000원씩 구입해 식당 15개소에

2500원에서 4000원을 받고 약 30만개, 7500만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계란은 부화용알로 적합하지 않은, 난막이 찢어 지거나 난각이 손상돼 내용물이 유출된 알, 율통불통해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알,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포장 및 난각에 생산자명 등 표시사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식용으로 유통이 불가능한 계란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량 계란을 납품받은 식당에 서는 육안상 불량계란임을 확인하고도 시중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란을 납품받아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문정곤 기자

## 전주시, 호동골 공원 맞춘 생태 놀이터 조성기로

전주시가 아중호수 주변 호동골공원에 수요자인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7일 전주시시책실센터에서 아동생각나눔단 아동 50여명과 사업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놀이터 조성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생각나눔단의 아동들이 올해 조성되는 생태놀이터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자신들이 놀고 싶은 지형물과 놀이소재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

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해 아중호수 주변 호동골공원 약 1973㎡를 리모델링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 속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생태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호동골생태놀이터에 아동들을 위한 오감체험 놀이공간과 비밀요새 놀이터, 보호자 휴게공간, 운동공간,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고, 화장실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미지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 중소기업,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시제품 제작지원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지원

전주시가 성장가능성을 지닌 지역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을 발굴해 시제품 제작지원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2017년도 강소향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시제품 제작지원 △생산 기반 공정개선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기업경영/컨설팅 △직업 직무 교육 △표준화 및 ISO 등 인증사업까지 6개 분야에 걸쳐 집중 지원한 총 4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기술마케팅지원실)을 전담 관리기관

으로 지정된 후, 지원대상 기업의 발굴·모집 및 선정, 성과평가 관리를 담당토록 했다.

특히 시는 이번엔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디렉토리 북을 제작 배포하고, 성장 사다리 기업간의 연대 강화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뿔(이)업종 융합산업 포럼'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소기업은 중기업으로, 중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해 향토기업을 독일과 같은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금속가공 소공인 공동인프라 지원실을 구축하는 등 기업에 로사향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시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등 수출유관기관과 지역 금융기관들과 함께 수출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는 지역 ICT기업과 공예품 생산업체의 중국수출 전진기지인 거점형 상설전시장인 J-한류상품

판매전시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강소향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을 통해 시제품제작부터 판매까지 적극 지원했으며, 그 결과 8개 참여업체가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등에 약 320만불(환화 약 40억원 상당)의 해외수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기 술력 있는 기업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소향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www.kctech.re.kr)를 참고하거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술마케팅 지원실(063-219-368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 입구 어선 전복사고 1명 사망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 입구에서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해 선원 1명이 사망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채광철)에 따르면 "27일 오전 5시30분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에서 9.7톤급 안강망어선 1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선원 김모(남·46)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직후 선장(52)과 선원 1명은 배에서 탈출해 방파제로 올라왔고, 또 다른 1명은 인근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선원 김모씨는 사고 어선의 뒤편 그물에 뒤얽혀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연도항을 출항하던 어선이 방파제에 걸리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구독문의 288-9700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